

박철수 “지자체와 협력…체육단체 자생력 강화” 김재무 “재정자립 통한 전남체육 르네상스 연다”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두산 김재환 메이저리그 도전
KBO에 포스팅 공시 요청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31)이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린다.

두산은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김재환에 관한 메이저리그 포스팅 공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재환은 수년 전부터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출전으로 포스팅 신청에 필요한 출전 일수를 채웠고, 프리미어12 종료 후 구단에 메이저리그 도전 의사를 알렸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프리미어12 대회 이후 김재환의 에이전트와 몇 차례 논의한 끝에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성재

안병훈

안병훈·임성재 프레지던츠컵 출전

2명 이상 선발 8년만

13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프레지던츠컵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안병훈(28)과 임성재(21)가 “오랜 꿈을 이뤘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으로 격년제로 진행되는 프레지던츠컵 올해 대회는 13일부터 나흘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다.

인터내셔널 팀은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의 선수로 구성되며 올해 출전하는 12명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과 임성재가 선발됐다.

프레지던츠컵에 한국 선수 2명 이상이 동시에 출전하는 것은 2011년 최경주와 양용은, 김경태 이후 올해가 8년 만이다.

올해 임성재와 안병훈이 출전하면서 역대 프레지던츠컵 출전 경력이 있는 한국 선수는 최경주, 양용은, 김경태, 배상문, 김시우에 이어 7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전남체육회장선거 스타트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광역지자체 중 전남체육회가 가장 이른 오는 15일 선거의 스타트를 끊고 경남체육회(12월 20일), 부산체육회(12월 27일) 순으로 새 회장을 뽑는다. 전남도체육회장은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박철수 후보와 김재무 후보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체육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의 대결 양상이다. 5일 전남도체육회 선관위 회의 결과 박 후보가 기호1번, 김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선거인수는 350명으로 확정됐다. 6일부터 9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지면으로 옮겼다.

◇기호 1번 박철수 후보

박 후보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체육단체 자생력 강화 ▲체육회 및 체육단체 내실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웰빙복지 구현 ▲전남형 체육발전 모델 개발 ▲회원중목단체 운영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체육인의 길에서 한 치라도 비껴간 적이 없다”면서 “체육전문학교를 거쳐 체육교사가 됐고 대학의 체육과 교수가 됐다”고 밝히며 체육인임을



박철수

강조했다.

이어 국가주도의 엘리트스포츠에서부터 생활체육의 기틀을 잡는데까지 체육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81년 광주·목포 소년체전에서 중등부 씨름부를 육성해 우승한 것부터, 목포대학교에 근무하며 카누의 불모지로 알려진 전남에 대학카누팀을 육성해서 34년간 감독을 맡았으며, 88서울올림픽 운영요원, 세계카누연맹 국제심판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근거로 목포시체육회의 통합에 참여하고 초대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전남도의 체육 살림을 총괄, 그 누구보다 전남체육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방체육의 현실이 녹록치

체육단체 내실화·전남형 체육발전 모델 개발
체육인프라 구축 체육산업으로 연계토록 준비

전문 체육 경기력 향상·생활체육 활성화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전남 체육 위상 제고



김재무

않다며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그는 “예산이 적다고 도의 재정적 지원만을 바랄 수는 없다. 가능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체육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학교, 관, 기업, 시민 그리고 체육단체의 시너지를 만드는 모델개발이 전남체육의 살길”이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많은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시설이 체육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전남체육회 회원중목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재무 후보

김 후보는 ▲튼튼한 재정자립을 통한 전남 체육 르네상스 시대 마련 ▲전문

체육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인의 복지와 성장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통한 전남체육의 위상 향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남체육 민선시대,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출마 소감이다.

김 후보는 “1945년 전남체육회 창립 이후 ‘민선체육회’라는 새로운 체제로 새로운 길에 나서게 됐다”며 재정자립을 통한 전남체육 르네상스 시대를 강조했다.

그는 “민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반은 체육회의 튼튼하고 안정적인 재정자립이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는 튼튼한 전남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및 전남도,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법적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새로운 민선체육회의 위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문화를 조성, 전남체육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며 “전남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종목단체별 실업팀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민 1인1종목 체육문화를 만들어 시·군 특성에 맞는 생활스포츠 환경조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계획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전남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회가 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훈련장과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산업화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와 같은 날인 15일 선거를 하는 보성군체육회도 김광선 전 보성군의원과의 최광주 전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등록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최진화 기자

손흥민 풀타임 공격포인트 불발

토트넘, 맨유에 1-2
모리뉴 감독 첫 패배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상대로 치른 ‘모리뉴 더비’에서 득점포가동에 실패하면서 7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에 실패했다.

더불어 토트넘 사령탑 부임 이후 3연승을 내달린 조제 모리뉴 감독도 1년 전 자신을 경질한 맨유와 맞대결에서 첫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토트넘은 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유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원정에서 마커스 래시퍼드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 날개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끝내 공격포인트를 따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최근 6경기 연속으로 이어졌던 손흥민의 연속 공격포인트 행진도 7경기에서 멈췄다.

지난해 12월 맨유 사령탑에서 경질된 모리뉴 감독의 이력 때문에 ‘모리뉴 더비’로 불린 이날 대결에서 전반 주도권은 기동력을 앞세운 맨유가 잡았다.

맨유는 전반 6분 왼쪽 측면으로 쇄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가운데)이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상대 프레드(왼쪽), 대니얼 제임스와 볼을 다루고 있다. 맨유가 2-1로 승리했다. /AP-연합뉴스

한 제시 리가드가 토트넘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의 방어에 막히는 과정에서 불이 흘렀고, 마커스 래시퍼드가 볼을 잡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래시퍼드의 발끝을 떠난 볼은 토트넘의 왼쪽 골대를 맞고 그대로 골그물을 흔들었다.

먼저 득점에 성공한 맨유는 뒤로 물러선 토트넘의 수비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맨유의 초반 공세에 애를 먹은 토트넘은 전반 39분 델리 알리의 동점 골이 터

져 나오면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전반전 내내 슈팅이 없었던 손흥민은 후반 6분 루카스 모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잡아 오른발 슈팅을 한 게 수비수의 발에 맞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맛봤다.

손흥민은 후반 33분에도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지만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오리에의 머리에 붙어 닿지 않아 공격포인트 달성에 이르지 못했다. 토트넘은 결국 1-2로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벤투 “동아시아컵, 3연패 도전만큼 팀 발전 중요해”

동아시아컵 앞두고 울산서 축구대표팀 소집…담금질 지휘

2019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하 동아시아컵)을 앞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좋은 경기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초의 ‘3회 연속 우승’ 등 기록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투 감독은 동아시아컵에 대비해 대표팀이 소집한 5일 울산중화운동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엔 우리와 꾸준히 함께 한 선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했거나 처음 발탁된 선수도 있다”면서 “이들이 팀에 잘 녹아들도록 해 잘할 수 있는 축구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회 연속 남자부 우승에 도전한다.

201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에서 일본을 격파하고 정상에 올라 남자부 최초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

한 데 이어 3연패까지 노린다.

최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연이어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고,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선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최대 실점(3골) 패배를 기록하는 등 다소 주춤했던 대표팀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벤투 감독은 “어느 대회든 좋은 결과를 위해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면 서도 “저에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건 팀이 어떻게 더 발전하느냐다. 그러면서 결과와 대회 3연패 같은 좋은 기록을 만들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득점난 해소에 대해선 “지난 경기들과 이번 달 선수 구성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의 고민은 해외파가 합류하지 못해 선수 구성이 달라졌다는 것 외에 K리그 등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체력이다. /연합뉴스